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2 No. 2, June 2019, pp.62~79.*
Copyright©2019,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조선 중기 경주 서출지(書出池) 일원의 정원 조영과 경관 특성

김형석[a]* · **심우경**[b]

[a]고려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 및 조경학 전공 · [b]세계상상환경학회

*Corresponding Author : arsenal1780@korea.ac.kr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삼국유사(三國遺事)』에 등장하는 유서 깊은 연못인 경주 서출지(세계유산, 사적 제138호)가 조선 중기 풍천 임씨(豊川 任氏) 가문의 정원으로 기능하게 된 배경과 정원의 형성, 당시 경관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문·시문·개인문집 등의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경관과 과거 사진 등을 비교하여 경관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집약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라 이후 조선 초기까지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해 당시의 기능과 경관에 대해 추측할 수 없지만 조선 중기 풍천 임씨가 동남산 일원에 세거하면서부터 별서정원으로 경영되었다. 당시에도 서출지를 유서 깊은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임적(任勣, 1612~1672)이 이요당(二樂堂)을 건립하면서부터 풍천 임씨의 정원으로 기능하였다.

둘째, 문헌 기록상 이요당은 객당·정사·별각·별서 등으로도 불렸는데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 누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능 때문에 평소에 빙허루(憑虛樓)라는 명칭이 통용되었다.

셋째, 서출지는 뒤로는 경주 남산(금오산), 앞으로는 넓은 들판과 남천이 흐르는 풍경이 수려한 곳에 입지하였으며,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을 갖춘 전형적인 조선시대 별서정원이었다.

넷째, 현재 풍천 임씨 종가가 사찰로 변하여 별서정원과의 관계성은 사라졌지만 현재의 주요 경관 요소인 연꽃과 소나무·대나무 숲이 옛 시문에도 나타나며, 현재 서출지 일원은 개발이 거의 진행되지 않아 경관이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서출지를 상징하는 배롱나무는 옛 시문과 과거 사진에 확인되지 않고 수령이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배롱나무가 두드러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 본 연구를 통해 서출지 일원을 전설 속의 장소로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정원으로서 공간적 의미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주 남산 일원의 문화 콘텐츠이자 조경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주제어 경주 남산, 별서정원, 세계유산, 이요당(二樂堂), 풍천 임씨(豊川 任氏)

투고일자 2018. 11. 19 ● **심사일자** 2019. 01. 18 ● **게재확정일자** 2019. 05. 13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주 남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서출지(書出池)는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편(紀異篇) 사금갑(射琴匣) 조에 등장하는 연못으로 기록상으로는 신라 초기 이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출지는 세계유산 경주역사유적지구(2000년 세계유산 등재)의 남산지구에 속한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자 사적 제138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연못의 유래와 연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고, 다만 전설 속의 장소로 베일에 가려진 곳이다. 현재 통일전 주차장에서 칠불암으로 오르는 남산의 등산로에 위치하고 있어 등산객들이 지나치는 정도이고, 최근 들어 연꽃과 배롱나무가 어우러진 경관이 알려지며 사진작가들과 관람객들이 찾고 있다. 서출지 주변은 1970년대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통일전·화랑교육원 등이 건립되었으나 세월이 흘러 노후화되었다. 이후 별다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대가 낙후되어 있으나 그만큼 옛 경관을 간직하고 있다.

이처럼 유서 깊은 연못이지만 그 가치가 제대로 조명되지 않고 있으며, 공간에 대한 조경사 분야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출지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현재 사적으로 지정된 서출지가 진짜가 아니라는 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서출지 위치 비정에 대한 연구,[1] 서출지 가의 이요당 관련 시문과 기문에 대해 번역하여 소개한 글[2]이 있다. 그외 서출지를 다루고 있는 연구와 문헌에서는 사금갑 전설을 인용하며 내전분수승(內殿焚修僧)과 궁주(宮主)의 간통 사건의 배경으로 언급될 뿐이다. 주요 내용은 『삼국유사』 사금갑 조의 해석에 대한 연구[3]로 사금갑 전설을 통한 불교 전래 초기 신라의 토속 신앙과 외래 종교인 불교의 마찰, 간통 사건에 대한 해석 등 신라의 종교적·정치적 내용 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연구가 부진한 이유로는 유적을 뒷받침할 만한 문헌 부족과 고고학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전설 속의 장소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밝히기 어려워 설화 속의 장소에 머물러 있는 서출지에 대해 문헌 기록이 등장하는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경주 서출지 일원의 정원 형성과 당시 경관에 대해 구명하고자 한다. 서출지 가에 이요당이 건립되기 전에는 이곳이 어떠한 공간이었는지 추정이 힘들다. 따라서 명확한 문헌 기록이 등장하는 시점이 조선 중기 이후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 중기 이후 풍천 임씨와 관련된 정원으로서의 가치에 중점을 두었다. 사금갑 설화 외에는 서출지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비록 신라 당대의 것은 아니지만 그 공간에 대해 다룬 최초의 연구로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삼국유사』로 대표되는 고대의 틀에서 벗어나 조선시대 정원 유적으로 서출지 일원의 가치를 조명할 수 있는 의의를 가진다. 이는 정원 유적을 어느 한 시대가 아니라 통시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김형석, 2017, 「사적 제138호 경주 서출지의 위치 비정 논란에 대한 역사적 고찰」 『신라문화유산연구』 Vol.1, pp.176~193.

2 조철제, 1999, 「경주의 院祠와 亭齋 (2)」 『경주문화논총』 Vol.2, pp.249~296.

3 강은해, 1996, 「사금갑 설화 연구」 『어문학』 Vol. 58, pp.1~24.
김영남, 2008, 『新羅 炤知王代 射琴匣 事件의 歷史的 理解: 內殿焚修僧과 宮主의 問題를 中心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식, 2003, 「사금갑(射琴匣) 설화의 역사적 이해」 『민속학연구』 Vol.12, pp.103~138.
나희라, 2010, 「射琴匣 說話와 新羅의 王權儀禮」 『역사문화연구』 Vol.37, pp.3~33.
이경희, 2005, 『사금갑 설화 연구 - 제의적 의미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창은, 2005, 「新羅 炤知王代 對高句麗 關係와 政治變動」 『사학연구』 Vol.78, pp.1~35.
조수학, 1985, 「사금갑 설화 연구」 『인문연구』 Vol.7 No.2, pp.307~33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 대상인 서출지는 경주 남산 동쪽 기슭에서 북쪽으로 치우쳐 입지(사진 1의 A와 B)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주시 남산동에 속한다. 동남산 일원은 신라 왕릉을 비롯해 수많은 절터가 있으며, 마을 전체가 유적이 분포된 지역으로 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낙후되어 있는 상태이다. 근처에 1970년대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건립된 통일전과 화랑교육원이 위치한다. 서출지는 『삼국유사』 사금갑 조에 최초로 언급된 것으로 보아 신라 초기 이전부터 있었던 연못으로 보이지만 이후로는 뚜렷한 언급이나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던 것이 조선시대 경주 동남산 인근에 세거한 풍천 임씨 가문과 관련하여 문헌에 꾸준히 등장한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개인문집에 실린 서출지와 이요당 관련 기록이 번역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아 서출지 위치 비정 논란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 1 서출지 입지, A: 경주 남산 동쪽 기슭에 입지한 서출지(다음 지도 필자 수정), B: 서출지.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설화 속의 장소였던 서출지 일원이 조선 중기 이후 정원으로 기능하게 된 배경과 연혁을 고찰하였다. 문헌조사는 서출지·이요당 관련 내용이 나타나는 조선시대 기문·시문·개인문집(표 1) 등을 분석하여 정원의 조영과 연혁을 구명하였으며, 조철제의 번역문[4]을 위주로 참고하였다. 현지조사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현지답사, 기초 실측조사 및 풍천 임씨 종친회 임준식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시하였다. 또한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경관과 일제강점기 사진, 1950년대 사진, 현재 경관을 비교하여 현재의 식생과 공간의 변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서출지 일원의 정원 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표 1 본 연구에서 분석한 조선시대 문헌

구분	문헌	연도	비고
기문	二樂堂創建記	1665년	임적(任勣, 1612~1672)이 지은 이요당의 창건 기문
	重修二樂堂記	1736년	이덕표(李德標, 1664~1745)가 지은 이요당 중수 기문
	憑虛樓重修記	1780년	남용만(南龍萬, 1709~1784)이 지은 빙허루(이요당) 중수 기문
지리지(地理誌)	東京雜記	1669년	경주의 지리지(地理誌). 편자 미상으로 전해온 『동경지』를 경주부사 민주면(閔周冕, 1629~1670)이 증수하여 간행
	東京通誌	1933년	최준(崔浚, 1884~1970)이 『동경잡기』를 수정·보완하여 간행한 경주의 지리지
일기	淸臺日記	1737년	임적의 손자 임화세의 벗이었던 권상일(權相一, 1679~1759)이 울산부사 재직 시절 작성한 일기
행장(行狀)	鰲峯 任仁重 行狀	?	남경희(南景羲, 1748~1812)가 쓴 임적의 아들 임인중의 행장
	是庵 任華世 行狀	1772년	이상진(李象辰, 1710~1772)이 쓴 임적의 손자 임화세의 행장
개인문집	花溪集	1881년	경주의 유학자 류의건(柳宜健, 1687~1760)의 시문집
	霽巖集	1832년	경주의 유학자 최종겸(崔宗謙, 1712~1792)의 시문집
	蒿廬集	1908년	경주의 유학자 서숙(徐塾, 1820~1882)의 시문집
	牧齋集	1939년	경주의 유학자 황곡(黃斛, 1721~1790)의 시문집

4 조철제, 1999, 앞의 논문, pp.249~29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2004, 『경주 남산 정밀학술조사보고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pp.347~349.

Ⅱ. 풍천 임씨(豊川 任氏) 가문의 이요당(二樂堂) 건립과 정원 조영

1. 경주 동남산 일원에 세거한 풍천 임씨 가문의 연혁

서출지가 입지한 경주 (동)남산 일원은 풍천 임씨의 집성촌으로 조선 중기 이후 서출지 일원의 역사는 풍천 임씨 가문과 관련이 깊다. 서출지 일원은 400여년 전부터 황해도 풍천(豊川)을 본관으로 하는 임씨(任氏)가 대를 이어 살아오고 있는데, 풍천 임씨는 조선시대에 인구 대비 문과 급제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가문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생활상태조사 경주군』에 서출지가 있는 경주군 내동면 남산리(현 경주시 남산동)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남산리(南山里)는 내동면(內東面) 내의 한 마을로 풍산 임씨(豊山 任氏)의 집성촌이다. 면사무소에서 서쪽으로 2.1km 쯤 되는 남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서쪽으로 남산(南山)이라는 명산을 업고 앞으로는 넓은 들을 바라보는데, 농산물이 풍부하고 교통이 편리하다. 남산 아래에 있는 까닭에 남산리라 이름했으며 신라 때부터의 마을로 서출지(書出池)가 있다. 지금부터 약 300년 전 임치곡(任鴟谷) 공이 본군 외동면 치술령(鴟述嶺) 아래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이후로 자손이 번영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동성 풍산 임씨 60호, 타성 25호가 있다.[5]

경주 동남산 일원은 풍산 임씨(豊山 任氏), 남산 임씨(南山 任氏)로도 불렸던 풍천 임씨(豊川 任氏)의 세거지로 시조 임온(任溫)은 중국에서 은자광록대부(銀紫光祿大夫)를 지냈으며, 후손들이 신라에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높은 관직을 역임하면서 저명한 성씨가 되었다. 이후 조선시대에 경주에 세거한 후 한강(寒岡) 정구(鄭球, 1543~1620)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광해군대에 폐모론을 배척한 임이현(任以賢, 1588~1625)과 그의 아들 임적(任勣, 1612~1672), 임극(任勉, 1614~1686)이 모두 학문으로 이름이 높았다. 임적은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금오산(남산) 아래 서출지 가에 정자를 지어 이요당(二樂堂)이라 편액하고 은거하였다. 임적의 아들은 진사(進士) 임인중(任仁重, 1645~1721), 손자는 예조정랑(禮曹正郎)을 지낸 임화세(任華世, 1675~1731)이다. 임화세의 외손자는 영조대의 대사헌(大司憲) 이정규(李鼎揆)이다. 이렇듯 풍천 임씨는 경주에서 이름난 명문 사대부 집안이었다. 임인중은 부친이 건립한 이요당을 증축하고 소요하였으며, 임화세는 서출지 가에 거처를 마련하여 몽희당(夢羲堂)이라 편액하였다. 현재 경주시 남산동의 상주 인구는 500여명이며, 서출지 일원의 인구는 약 90%를 풍천 임씨가 차지하고 있다.[6]

한편 서출지에 인접하여 서남측에 약 60m[7] 떨어져 옛 풍천 임씨 경주파 종택(宗宅)이 있었는데 이요당을 건립한 임적의 가택이었다. 이 종택을 중심으로 서출지 일원은 풍천 임씨와 관련 깊은 정원으로 기능하게 된다. 하지만 후에 가세가 기울어 종택을 매각하였는데 자손들이 후에 다시 매입하지 못하면서 풍천 임씨 경주파 종택은 1972년 무량사(無量寺)라는 사찰로 변하게 되었다(사진 2의 A, B). 최근(2017년 4월 15일) 들어서야 무량사 옆에 풍천 임씨 종친회 건물(사진 2의 C)이 한옥으로 지어져 종택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무량사는 풍천 임씨 종택을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종택의 흔적과 사대부가의 모습이 상당 부분 남아 있으며, 종가의 안채였던 법당을 비롯한 사찰 내 건물들은 화려한 공포와 단청이 없이 소박하고 정갈한 양반 사대부 민가의 모습을 보인다.

5 김기조 옮김, 2008,『조선총독부 발간 생활상태조사 (7) 국역 경주군』, 경주문화원, p.306.

6 풍천 임씨 가문 내력과 관련하여서는 '한국 역대 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과 '풍천 임씨 종친회 관계자(임준식)'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7 이요당 중심에서 옛 종택의 중심까지 직선 거리.







사진 2 무량사(옛 풍천 임씨 종택)와 풍천 임씨 종친회 건물, A: 무량사 법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종가의 안채, B: 종가의 흔적이 남아 있는 무량사 내부, C: 2017년 무량사 옆에 건립된 풍천 임씨 종친회 건물.

2. 이요당 건립과 정원의 조영

서출지는 『삼국유사』에 언급된 이후로 신라·고려·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헌에도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고고학적 조사를 비롯해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지 사금갑 이야기[8]를 간직한 전설 속의 장소에 머물러 있었다. 이와 같이 신라시대 이후 1,200여년 동안 공간의 자취가 지워진 서출지는 조선 중기에 들어와 이요당(사진 3의 A와 B)이 건립되면서 조명받기 시작한다.





사진 3 서출지 가의 이요당(빙허루), A: 서쪽에서 바라본 이요당, B: 동쪽에서 바라본 이요당.

이요당은 1665년 임적이 서출지 서측 호안에 건립하였다. 서출지에서 남동쪽으로 약 400m 떨어진 곳에는 임적의 아우 임극의 후손들이 건립한 산수당(山水堂)[9]이 있다. 이요당과 산수당은 임적과 임극의 호이기도 한데, 당호에서부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논어』의 '인자요산 지자요수(仁者樂山 知者樂水)'라는 말을 취해 임적(형님)이 호를 '이요당'이라 하자 임극(아우)은 '산수당'이라 하여 형제간의 우애를 나타낸 것이다. 이요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인 팔작지붕의 'ㄱ'자형 정자 건물로 주위는 높이 2m 정도의 막돌담을 쌓아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으며[10] 온돌방을 갖추고 있다. 이요당의 동쪽은 분합문을 설치하여 여름에는 남천(南川)과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서출지를 지나 남산으로 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편 임적이 지은 「이요당창건기(二樂堂創建記)」(사진 4)에는 이요당을 창건하게 된 배경을 밝히고 있는데,



사진 4 「이요당창건기」.

8 『삼국유사』 기이편 사금갑 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하며, 설화의 배경으로 서출지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제21대 비처왕(毗處王)[소지왕(炤智王)] 즉위 10년 무진년(서기 488)에 천천정(天泉亭)에 납시었다. 이때 까마귀와 쥐가 와서 울었다. 쥐가 사람 말을 하며 "이 까마귀가 가는 곳을 찾아가소서"라고 했다. 왕이 기사에게 명하여 추적케 했다. 남쪽으로 피촌(避村)에 이르니 두 마리 돼지가 서로 싸우고 있었다. 멈추고 이를 구경하다가 문득 까마귀가 간 곳을 잃었다. 길가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한 늙은이가 못 속에서 나와 편지를 주었다. 겉봉에 쓰여 있기를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고, 만약 열어보지 않는다면 한 사람이 죽을 뿐입니다."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두 사람은 서민일 것이요 한 사람은 임금일 것입니다." 왕이 "그렇겠구나" 하고 열어 펴보니 편지에 고집(현악기 보관함)을 쏘라고 쓰여 있었다. 왕이 궁궐에 들어가 고집을 쏘았다. 고집 안에는 내전(內殿)에서 불공 드리는 중과 궁주(宮主)가 은밀하게 간통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주살되었다. 이로부터 나라 습속에 매년 정월 첫 해일(亥日, 돝날), 첫 자일(子日, 쥐날), 첫 오일(午日, 말날)에는 모든 일에 조심하고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다. 정월 보름날을 오기일(烏忌日, 까마귀의 제삿날)이라 하여 찰밥으로 제사 지냈으니 지금까지도 행해지고 있다. 향속말로 달도(怛忉)라 하니 그 말은 슬프고 근심스러워 모든 일을 금기한다는 뜻이다. 그 못을 서출지(書出池)라 이름했다(문경현 역주, 2015, 『역주 삼국유사』, 민속원, pp.164~165).

9 이요당(임적)과 산수당(임극)의 관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형석, 2017, 앞의 논문을 참조.

10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2004, 앞의 책, p.347.

서출지라는 못 이름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지수(池水)'라 하여 이미 연못(서출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요당창건기

내가 이곳에 30년간 살았다. 지난 계묘(癸卯)년 여름에서 겨울까지 가뭄이 심하고 비가 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천택(川澤)이 말라 우물에는 한 바가지의 물도 없고, 못에는 한 자의 물도 고이지 않아 집집마다 물독을 이고 동서로 분주히 돌아다닌 것이 그 얼마나 되었는가. 내가 이곳에 우물을 파서 다행히 샘물을 얻으니,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 혜택을 입었다. 또한 이 못(池)에 물(水)이 마름으로 인하여 산에서 돌을 운반하여 석대(石臺)와 둑을 쌓아 그 위에 정사(精舍)를 짓고 유식(遊息)의 장소로 삼으려 하였다. 이듬해 10월에 비로소 건축을 시작했으나 겨울이 너무 추워서 역사(役事)를 중지시켰다가 다음 해 을사년 정월 14일 상량하게 되었다. 이 정자의 창건을 어찌 우연이라 하겠는가. 후세 자손들은 이 정자를 불후(不朽)히 보전하도록 하라. 을사(乙巳)년 정월에 주인 임적이 쓰다.[11]

심한 가뭄에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으며, 못의 물이 바닥을 드러낸 것을 계기로 남산에서 돌을 가져와 축대와 둑을 쌓고 이요당을 세웠다는 내용이다. 조선 현종 즉위년(1660년) 당시의 가뭄은 경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국가에서 가을 이후에는 기우제(祈雨祭)를 지내지 않는 제도에도 불구하고 이때 기우제가 특별히 거행[12]될 정도로 국가적인 재난이었다. 이러한 때에 샘을 발견하였으니[13] 그 기쁨은 남달랐을 것이다. 못에 물이 없었으므로 이요당 건립이 수월하였으며, 샘을 발견한 일로 민심을 얻어 마을 사람들이 이요당 건립에 동참한 것이다.

현재 이요당의 주춧돌 등 건축에 사용된 석재로 사찰의 부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요당 건축을 위해 가까운 거리의 경주 남산에 산재하였던 폐사지 등에서 석재를 옮겨 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사진 5의 A~D). 이와 같이 이요당이 건립된 시점부터 서출지 일원은 풍천 임씨 가문과 관련된 정원으로 문헌 기록에 꾸준히 나타나게 된다.



사진 5 이요당 건립을 위해 경주 남산 폐사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석재, A: 주춧돌로 사용한 석등대좌, B: 주춧돌로 사용한 화형초석, C: 석수조, D: 석등대좌와 상대석.

이후 1669년에 편찬된 『동경잡기(東京雜記)』에서도 이요당을 소개하면서 서출지라는 명칭은 언급되지 않는다. 다만 이요당을 설명하면서 "앞이 연못(池湖)에 임하며 돌을 쌓아 대를 만들었다"[14]라 했는데, '지호(池湖)'는 서출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후 70여년 뒤 1736년 「중수이요당기(重修二樂堂記)」에도 서출지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

11 余之卜居於三十年于玆矣 往在癸卯之年 自夏徂冬 彌月不雨 川澤枯渴 井乏一勺之汲 池無尺水之儲 家頂盆 又奔走東西者 未知幾何 余鑿於斯 幸而得泉焉一里人人皆蒙其澤 又因其池水之渴 與運山石 築臺成砌 欲作精舍於其上 以爲遊息之所 越明年冬十月 爲始創建而 以冬日甚寒 停役矣 翌年乙巳正月十四日 上樑焉 是亭之作豈偶然哉 後之子孫 嗣而永保斯亭之不朽也.

12 七月, 以大旱, 命行雩祭. 國制秋後無祈雨, 至是特行之(현종실록 1권, 현종 대왕 행장).

13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50여년 전까지 이요당 남측에 인접하여 우물(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14 前臨池湖 築石爲臺(『東京雜記』).

중수이요당기

경주부 동쪽 십여 리에 정자가 날아갈 듯 연못가에 임하고 있는데 이름하여 이요당이라 한다. 이는 곧 풍천 임공(任勣)이 자연을 즐기던 곳으로, 일찍이 『東京誌』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 나의 중부(仲父)께서 이요당 상량문을 지어서 그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다.

일찍이 술을 가지고 이 정자에 오르면 호산(湖山)의 풍경을 귀와 눈으로 얻어 볼 수 있는 게 많다. 하루는 西河 任彦兮가 상량문을 소매에 넣어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여주며 말하기를 "이요당은 저의 선조의 별서로, 숭정 갑진년(1664)에 창건[15]하여 지금 7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위로는 비가 새고 밖으로는 바람을 막지 못해 거의 무너질 지경이었는데, 금년 가을에 중수를 시작하여 목재를 구하고 장인을 불러 곧 옛 제도에 따라 증수(增修)를 했습니다. 주춧돌과 섬돌이 기울어진 것을 증축하여 보수하고 서까래와 기와가 썩어서 검은 것은 새로운 것으로 바꿔 규모와 제도가 환연히 새 모습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대가 다행히 우리를 위해 그 전말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고 하였다. (후략)[16]

「중수이요당기」에 따르면 이요당은 선조의 별서(別墅)이며, 술을 가지고 이 정자에 올라 금오산(湖山)의 풍경을 눈과 귀로 얻어 볼 수 있는 곳이었다. 풍천 임씨(임적)가 벼슬에 대한 뜻을 접고 은거하며 지내던 곳이며, 종가와 관련된 별서정원이다. 또한 규모와 제도가 달라졌다고 언급하고 있어 초창 후 70여년 뒤 중수하면서 건물이 증축되어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요당 건립 후 70여년이 지날 때까지 이요당 앞의 연못이 서출지라고 직접적으로 기술한 문헌이 보이지 않다가 1737년 울산부사 권상일(權相一, 1679~1759)이 경주를 방문하고 쓴 일기[17]에서 '서출지(書出池)'라는 언급이 처음 나타나고, 1772년 임적의 손자인 임화세의 행장(行狀)에 서출지를 '서지(書池)'라 표현하고 있다. 특히 권상일의 일기에서는 이요당을 가리켜 빙허루(憑虛樓)라 지칭하고 있다. 이로 보아 1736년 중수 이후 누각이 증축되고 빙허루라는 명칭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빙허루는 이요당과 통용해서 쓰던 당호로서 남용만(南龍萬, 1709~1784)이 1780년에 지은 「빙허루중수기(憑虛樓重修記)」에 작명 배경이 전하는데 누각으로서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으며, 풍천 임씨의 별각(別閣)이라 말하고 있다.

빙허루중수기

빙허루는 임씨의 별각(別閣)인데 경관이 빼어나고 서출지가에 있다. 아래로는 땅이 없고 물과 수십장 떨어져 있다. 가볍고 눈부신 비조(飛鳥)가 공허(空虛)한 사이에 날아 표연하게 의지할 데 없는 것과 같은데, 이를 빙허루라 이름한 것이다. (후략)[18]

당시 사람들이 서출지와 이요당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요당(빙허루)이 서출지 가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후 문헌에서는 서출지라는 이름이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

15 1664년은 이요당 건립을 시작한 해로 상량은 1665년에 이루어졌다.

16 府之東十餘里 有亭翼然 臨乎池面而 名其堂曰二樂 卽故豊川任公考槃之地 曾於東京誌中而 知其槩 又据仲父所撰上樑文而 得其詳 亦嘗把酒登斯 湖山風景 耳得而目寓者 多矣 一日西河任君彦兮甫 袖樑頌而來 視之日 堂是吾先祖別墅 肇建於崇禎后甲辰 距今七十有餘歲而 上雨旁風 未免頹圮 今年秋始重營 鳩材召匠 仍舊貴增修 礎砌之欹 傾者築而補之 椽甍之腐 黑者易而新之 規模制度 奐焉改觀 子幸爲我 記其顚末….

17 당시 울산부사였던 권상일의 일기인 『청대일기(淸臺日記)』에 1737년 3월 4일 경주에 들러 세상을 떠난 벗(亡友)인 임화세의 집을 방문하여 서출지 일원을 둘러본 내용이 나타난다. 권상일은 임화세의 집에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지은 몽희당(夢羲堂)을 둘러보았으며, 그의 조부(임적)가 지은 빙허루(이요당)에 올라 서출지 일원의 승경을 구경하기도 하였다. (최은주, 2009, 「어느 울산부사를 통해 본 지방관 글쓰기의 실제 -청대 권상일 울산부사 시절을 중심으로-」『영남학』 Vol.16, p.172) 晩發歷訪南山村任君一欽家, 洞壑寬閑, 松林衛迤. 亡友任實兮, 戊□午 年間, 新創客室, 扁以夢羲堂自號, 是庵有記文揭壁, 其祖任漬建憑虛樓, 俯壓蓮池, 池卽羅朝書出池也. 廣幾數石許, 樓前一間立於水中, 皆(『淸臺日記』).

18 憑虛樓者 任氏別閣 以勝觀聞 在書出池上. 下臨不地 離水數丈而. 浮罩飛鳥 革於空之間而 飄飄然 知無所憑 此其所以名也…(『活山集』).

한편 1933년 출간된『동경통지(東京通誌)』에서는 서출지제(書出池堤)라 일컫고 있는데,[19] 제(堤)라는 용어는 연못의 다용도 기능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일제강점기 이후로 넘어오면서 정원의 기능은 약화되고 수리시설로서의 기능이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에는 풍천 임씨 종가의 가세가 기울어 1910년경 종택을 타인(손제익)에게 매각하는 등 서출지 일원의 경영이 어려웠다.[20] 결국 가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1972년에 종택이 무량사로 변하게 된다. 현재도 서출지는 주변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문헌에는 이요당을 지칭하는 말로서 1665년「이요당 창건기」에서 정사(精舍), 1669년『동경잡기』에서 객당(客堂), 1736년「중수이요당기」에서 별서(別墅), 1780년「빙허루중수기」에서 별각(別閣), 그외 빙허루로도 불렸으며, 서출지 또한 다양하게 지칭되었다(표 2). 임적의 호이기도 한 이요당은 본래 임적이 손님과 친구를 맞아 시를 읊고 시간을 보내던 임적의 가택에 있는 별채 당호였다.[21] 따라서 가묾에 샘을 파서 이를 계기로 서출지 가에 세운 이요당과 동명이당(同名異堂)이 된다. 즉 임적의 집안에 있던 이요당(별채)이 서출지에 누정이 건립되고 당호가 옮겨간 것이다. 다만 이때 가택의 별채가 이요당이라는 당호를 계속 사용하여 두 채의 이요당이 존재하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현재는 이요당이라는 이름만 알려져 있으나 당시에는 이요당과 빙허루의 명칭을 통칭하였다. 조선시대의 누정은 기능과 의미, 바라보는 풍경에 따라 여러 개의 현판을 설치하여 명명하였던 예[22]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요당 또한 그러한 의미에서 이요당과 빙허루라는 명칭으로 통용되었다. 서출지 관련 시문에는 풍경을 묘사하는 대목이 대부분으로 누정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며, 빙허루라 명명한 의미를 추측할 수 있다. 현재 이요당에는 이요당·빙허루(사진 6의 A와 B)의 현액(懸額)과 기문·시문 등이 걸려 있다. 이와 같이 이요당이 1736년 중수 후 누각 기능의 건물이 증축되고부터는 빙허루라는 이름이 자주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요당의 연혁을 정리하면 1664년에 건립을 시작하여 1665년 상량하였고, 1736년에 중수, 1780년에 다시 중수를 거쳤다.

표 2 기문과 개인문집 등에 나타나는 서출지와 이요당을 지칭하는 표현

문헌	저자	연도	서출지를 지칭하는 표현	이요당을 지칭하는 표현
二樂堂創建記	임적(任勣, 1612~1672)	1665년	池水	精舍, 二樂堂
東京雜記	민주면(閔周冕, 1629~1670)	1669년	池湖	客堂, 二樂堂
重修二樂堂記	이덕표(李德標, 1664~1745)	1736년	-	別墅, 二樂堂
淸臺日記	권상일(權相一, 1679~1759)	1737년	書出池, 蓮池	憑虛樓
是庵 任華世 行狀	이상진(李象辰, 1710~1772)	1772년	書池	-
憑虛樓重修記	남용만(南龍萬, 1709~1784)	1780년	書出池	憑虛樓, 別閣
霽巖集	최종겸(崔宗謙, 1712~1792)	1832년	小塘	樓, 二樂堂
花溪集	류의건(柳宜健, 1687~1760)	1881년	湖, 書出池, 池	湖亭, 小亭, 蓮亭
蒿廬集	서숙(徐塾, 1820~1882)	1908년	塘	憑虛樓 , 虛樓
東京通誌	최준(崔浚, 1884~1970)	1933년	書出池堤	二樂亭
牧齋集	황곡(黃斛, 1721~1790)	1939년	荷池	憑虛樓

19 황재현 역주, 1990,『국역 동경통지』, 경주문화원, p.244.

20 풍천 임씨 종친회 내부자료.

21 조철제, 2003,「경주의 院祠와 亭齋 (6)」『경주문화논총』Vol.6, p.107.

22 누정에 여러 개의 현판을 찾아 명명한 예는 안동 체화정(棣華亭; 형제간의 우애와 친목)·담락재(湛樂齋; 형제간의 우애), 밀양 영남루(嶺南樓)·현창관(顯敞觀; 훤히 트여 시원하다)·용금루(湧金樓; 금덩이처럼 (달이) 솟아오르는 것) 등이 있다.



사진 6 이요당과 빙허루 현판, A: 이요당 현판(이요당 서편 남산 쪽에 걸림), B: 빙허루 현판(이요당 동편 서출지 쪽에 걸림).

이상을 종합해보면 임적이 이요당을 건립할 당시 이미 연못(서출지)이 있었으며, 『삼국유사』의 사금갑 전설을 간직한 서출지는 많은 문사들이 다녀갔다. 이로 보아 조선시대에는 서출지로 분명히 인식되고 있었다. '서출지'라는 명칭이 조선시대 문헌에 등장한 것은 18세기 초로 서출지는 이요당이 건립되기 전에는 경관적 기능 외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연못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요당 건립 이후 풍천 임씨 가문이 그 일대를 경영하면서 임씨 가문의 정원으로 부각되었다. 원래 이요당이라는 당호는 임적의 집에 있던 별채였지만 서출지 가에 누정을 건립하고 자신의 호이기도 한 이요당이라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집안의 이요당이 집 밖으로 이동한 셈이 된 것이다. 또한 이요당은 빙허루라고도 지칭되었다. 서출지 가에 입지한 누정의 기능으로 인해 빙허루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이며, 조선 후기로 갈수록 빙허루라는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다음 장의 서출지 풍경을 읊은 시에서는 빙허루라는 명칭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Ⅲ. 서출지 일원의 입지와 경관

1. 서출지 일원의 입지와 공간 구성

신라시대의 성스러운 산(聖山)이자 조선시대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의 자취가 서려 있는 남산 자락의 서출지 일원은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별서의 입지로 손색이 없다. 조선시대 문인들이 경주 남산에 들러 서출지와 관련된 시문을 많이 남긴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일원은 조선시대 문인들이 선호하던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을 잘 갖추고 있다.[23]

서출지가 위치하는 동남산 일원의 전경과 공간 모식도(사진 7의 A~C)에서 보듯이 서출지를 중심으로 서쪽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뒤로 금오산(남산)이 병풍처럼 두르고 있다. 그 앞으로는 넓은 들판(논)이 있고, 남천이 흘러 마을의 입지를 형성하고 있다. 수려한 자연풍경을 갖춘 서출지 일원은 뒤로는 산, 앞으로는 물이 있는 산수(山水)가 어우러진 최적의 별서정원 입지를 가지며, 조선시대에는 동남지역에서 경치가 으뜸인 곳으로 널리 알려졌다.

서출지 일원의 정원 범위는 담장 안에서 벗어나 주변 자연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며, 나아가 경주 남산 일원으로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정원이다. 조선시대 풍천 임씨가 어떠한 이유로 이곳 서출지 일원에 세거하였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동남산 기슭은 풍천 임씨의 집성촌으로 종가가 있었으며, 서출지와 이요당은 「중수이요당기」에서 별서라 지칭하고 있으므로 서출지 일원은 풍천 임씨 종가의 영향권에 있었다. 임씨 종가와 별서인 서출지 일원은 시야권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남산 일원을 영향권으로 하는 풍천 임씨 가문의 정원이었다.

23 김형석, 2017, 앞의 논문, p.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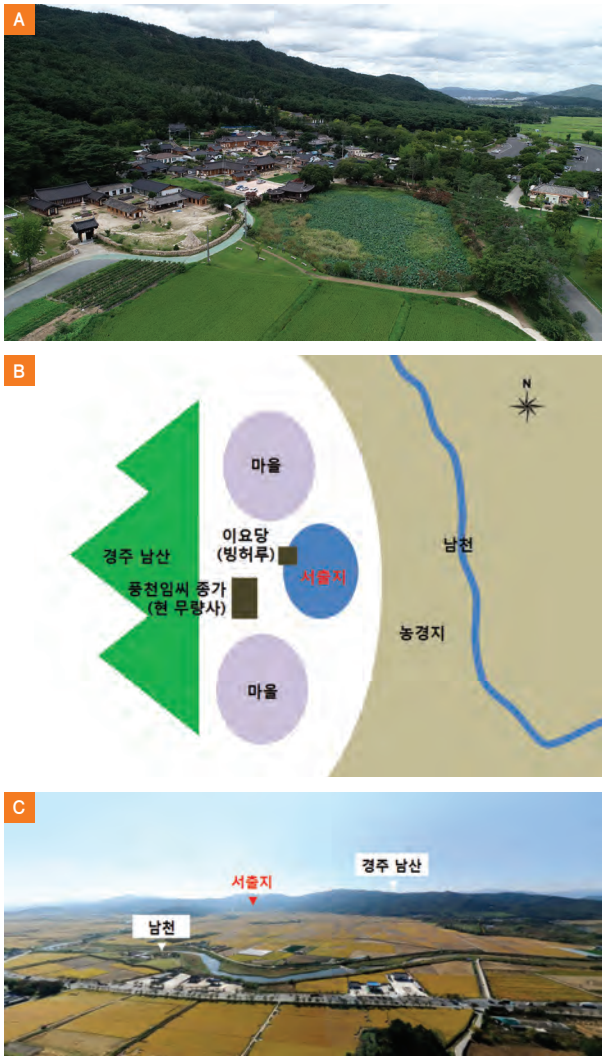


사진 7 서출지 일원의 전경과 공간 모식도, A: 서출지 전경, B: 서출지 일원의 공간 모식도, C: 서출지 일원의 전경(네이버 지도, 필자 수정).

이 지역은 경주 남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 보존지역이라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주에서도 낙후된 지역이다. 불과 10여분 거리에 시내가 위치하지만 이곳은 현대와 단절된 듯하고 주민들도 불편에 익숙해져 있다. 주말이면 등산객들과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외지 방문객과 차량들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조용한 마을이다.

2. 시문에 나타난 서출지 일원의 경관

우리나라 조선시대 정원은 대부분 산수가 수려한 곳에 입지하고 있어 인공적으로 경관을 조성하지 않고도 자연 그대로를 정원으로 경영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곳을 방문하고 남긴 기문이나 시문 등을 통해 정원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가 많아 정원 연구와 복원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또한 정원 유적을 연구하고 복원하는 데는 시문(description)과 그림(illustration)·유적(remains)이 필수적인데[24] 경주 서출지 일원에는 시문과 유적이 남아 있어 그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출지 일원은 신라시대 관련 기록은 부족하지만 조선시대에 이 공간을 어떻게 경영하고 의미를 부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시문과 기문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 중기 서출지에 이요당(빙허루)이 건립된 것은 조선 중기 이후 풍천 임씨와 관련된 정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의 서출지 일원을 묘사한 「오봉 임인중 행장」, 「시암 임화세 행장」을 통해 당시의 정원 경관을 파악해볼 수 있다.

나이 서른일곱에 발분하여 삼장(三場)에 합격하고 사마시(司馬試)에 입격한 후로 영화로운 진취에 대한 뜻을 끊고 날마다 이요당에서 소요하였으니 이 당은 세상을 떠난 공의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것으로 정원과 연못이며, 꽃과 나무가 어우러져 동남지역에서 으뜸인 경치로서 진정으로 은둔하는 자가 노닐 만한 곳이었다.[25]

할아버지의 휘는 적(勣)으로 은거하며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금오산(金鰲山) 기슭 서지(書池) 곁에 터를 잡았으니 이곳은 소나무와 대나무가 정원을 이루고 아름다운 자연이 빼어난 경치 좋은 곳이었다.[26]

24 김수진·정해준·심우경, 2006, 「강진 백운동(白雲洞) 별서정원에 관한 기초 연구 -입지와 공간 구성을 중심으로-」『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24 No.4, p.59.

25 年三十七 一發捷三塲 中進士試 自是絕榮進意 日逍遙二樂堂 堂皇孝所築 園池花木甲東南 眞隱者盤旋處也(이상필 역주, 2017, 『慶州鄕賢錄 下』, 경주시·경주향현록편찬위원회, p.2180).

26 祖諱勣隱不仕 卜築于金鰲書池上 有松篁園林之勝(이상필 역주, 2017, 앞의 책, p.2198).

위 내용은 이요당을 건립한 임적의 아들 임인중과 손자 임화세가 선조(임적)가 이루어놓은 서출지 일원의 정원에서 자연을 즐겼다는 내용이다. 금오산(남산) 자락의 자연 풍광과 소나무·대나무·꽃·연못으로 이루어진 정원으로 동남지역에서 으뜸인 경치를 가진다고 하였다. 소나무와 대나무는 현재도 서출지 주변에 숲을 이루며 주된 식생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요당·서출지와 관련된 다음 시문을 통해 서출지 일원의 경관과 식물 등 공간에 대해 유추할 수 있다.

연정을 지나다가 느껴서 읊다.

고택은 황량하고 풀과 나무 둘러싸였는데 담장은 무너져 한낮에도 문이 닫혔구나. 호숫가 지나는 나그네 시름도 많아 창상(滄桑)의 덧없는 세월 한순간에 흘렀구나. 호정(湖亭)에 주인은 없고 먼지만 가득 쌓여 문 닫힌 석양에 사람은 보이지 않는구나. 다만 연꽃은 옛과 같이 피어서 난간 가 웃음 머금고 나그네를 맞는구려.[27]

부윤 황공이 지은 남산 연정에 차운하다.

오늘 시 짓는 이곳이 옛날에는 서출지라 하였지. 작은 정자에서 늦도록 구경하고 태수는 술에 취하여 석양에 돌아가는구나. 아름다운 시구는 사람마다 다투어 외우고 이름난 승지는 곱절이나 기이하지. 훌륭한 이름을 백세에 전하니 초목도 응당 알고 있는 것일세. 그윽한 놀음 마치자 배 돌려보내고 술 취하여 연지 가까운 집으로 돌아간다. 이곳은 이미 오래 전부터 명구(名區)로 알려졌고 공에게 일찍 이 나라의 부름이 늦었구려. 연꽃은 피었으나 오히려 적막하고 송죽은 또한 청고(淸高)하며 기특하구나. 태수는 그 즐거움을 즐기시니 속인이야 아는 사람만이 알지요.[28]

이요당에 차운하다.

지루한 우기(雨氣) 개이자 말 타고 돌아오니 연꽃 잎 부드러운데 작은 지당 열렸구나. 뽕나무 깊은 마을에 그윽한 시정(詩情) 드러나고 연하(煙霞)의 길 들어가니 상기(爽氣)가 일어난다. 천지에 한 누각 삼복 더위 더하고 호산(湖山)에 벗 없어도 백년의 술 익었구나. 빙허루에 의지하여 신선을 찾으려니 금오산 깊은 곳에 학사대(學士臺)가 우뚝하네.[29]

빙허루 중양절 운에 차운하다.

남산 아래에 길은 고불고불 빙허루에 오르니 눈앞이 탁 트이는구나. 뜰에 가득한 국화는 은자의 기품이고 연당 둘러싼 수레 덮개 사군(使君)이 오셨구려. 귀 울린 피리소리 담장 안에 요란하고 시 읊은 멋 향기 잔술에 견줄 건가. 성대(聖代)에 놀음은 참으로 즐길 일인데 중양절 어느 곳인들 등고(登高)하지 않으랴.[30]

빙허루에서 부윤 이병정 운에 차운하다.

뜨겁고 무덥던 여름날에 아름다운 수레 타고 연당 오셨네. 비 개이자 다투어 꽃이 피고 가을은 왔지만 가는 여름 더디구나. 청산은 보는 사람에 따라 좋으며 백조는 아득히 눈동자에 들어오네. 천고 이전에 고운(孤雲)이 떠나신 뒤 그 풍류 골짜기 학(鶴)만이 알겠지요.[31]

시문에서는 신선을 동경하는 구절이 등장하고 있어 선계(仙界)를 추구하는 원림으로 볼 수 있으며, 은둔의 장소, 학문과 유식을 위한 정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꽃을 비롯하여 소나무·대나무·뽕나무·국화가 언급되고 있다. 서출지의 연꽃, 서출지 일원

27 故宅荒凉草樹環 牆垣頹落晝門關 湖邊過客偏多感 滄海桑田一瞥間 湖亭無主任堆塵 門掩斜陽不見人 惟有荷花依舊在 倚欄含笑欲迎賓(過南山蓮亭 有感二首『花溪集』).

28 今日詩成處 昔年書出池 小亭遊賞晩 太守醉歸遲 佳句傳爭誦 勝區倍一奇 高名留百世 草木也應知 罷遊滑州舫 去醉習家池 地已壇名久 公曾命駕遲 荷花雖寂寞 松竹亦淸奇 太守樂其樂 俗人知不知(次府伯黃公 題南山蓮亭韻 二首『花溪集』).

29 潯雨初晴客 荷葉艷艷小塘開 村深桑柘幽情見 路入煙霞爽氣來 天地有樓三伏日 湖山無友百年盃 鰲背雲深學士臺(次二樂堂韻『霽巖集』).

30 南山之下路盤廻 步上虛樓眼豁開 滿圃黃花高士隱 繞塘皂蓋使君來 笙歌飽耳爭環堵 詩律香牙卻勝盃 聖代優遊眞樂事 重陽何處不登臺(次憑虛樓重陽韻『嵩廬集』).

31 乾坤流火日 仙蓋降荷池 雨過雀花發 秋來逐暑遲 靑山隨意好 白鳥入眸奇 千古孤雲去 風流洞鶴知(憑虛樓 次李府伯韻『牧齋集』).

의 배경이 되는 소나무와 대나무, 남산 자락에 위치한 마을의 뽕나무·국화 등이 장관을 이루며 서출지 일원의 공간을 구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시문에 나타나는 경관 요소를 시각적 요소와 상상적 요소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3).

표 3 시문에 나타나는 서출지 일원의 경관 요소

구분	경관 요소
시각적 요소	정원, 연못, 꽃, 나무, 금오산, 남산, 서출지, 이요당, 빙허루, 소나무 숲, 대나무 숲, 고택, 풀, 담장, 마을, 난간, 연꽃, 작은 지당, 호수, 작은 정자, 뽕나무, 누각, 호산(湖山), 국화, 수레, 백조
상상적 요소	소요(逍遙), 호젓함, 백년의 술, 시 읊기, 최치원, 신선, 은자, 피리소리, 등고(登高), 풍류, 학

한편 일제강점기와 현재의 서출지 일원 사진(사진 8의 A, B)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는 확인되지 않으며,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체로 과거의 경관을 간직하고 있다. 또한 1954년 항공사진에 서출지 동쪽 호안의 소나무, 서쪽 남산자락의 소나무와 대나무 숲이 현재와 같이 나타나고 있어 서출지 일원의 근간을 이루는 경관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사진 8의 G와 H), 풍천 임씨 종가를 중심으로 한 방풍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시문에 나타나는 과거 경관과 현재의 경관을 비교해보면 소나무와 대나무 숲(사진 8의 C), 연꽃(사진 8의 D)은 현재에도 주된 식생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나 현재 서출지 경관을 대표하는 호안의 배롱나무[32]에 대해서는 시문에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서출지 호안의 배롱나무 중 수령이 오래된 고목은 이요당 옆에 2주가 있으며(사진 8의 E), 현재 호안 전체에 등간격으로 식재된 배롱나무(사진 8의 F)는 수령이 오래되지 않아 근래에 심은 것으로 보인다. 1954년 항공사진(사진 8의 G)에도 명확한 식별은 어려우나 2017년 항공사진(사진 8의 H)과 비교하면 호안에 수목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과거에는 배롱나무가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물리적인 경관은 서출지 일원이 개발 사업에서 배제된 측면이 있어 시문 속에 나타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인근의 통일전 외에는 현대식 건물로 두드러진 것이 없고, 2층 이상의 고층 건물 또한 없기 때문에 대체로 과거 경관을 상상하는 데 무리가 없다. 서출지 일원의 경관을 현재 지형도 상에 대입시켜보면(그림 1) 명산(금오산)을 배경으로 하고 앞에는 수공간(서출지와 남천)을 가진 전형적인 원림의 입지와 공간 구성을 가진다.



그림 1 서출지 일원의 공간 구성과 경관.

이상 서출지 일원의 경관은 서출지를 대상으로 읊은 시문과 기문의 내용으로 볼 때 과거의 경관을 현재에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서출지 주변 식생 경관에 대해서는 서출지 일원이 풍천 임씨의 정원으로 기능할 당시 현재와 같이 서출지 외부로 소나무와 대나무 숲이 우거졌으며, 연못에는 연꽃이 주된 식생 경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한편 연꽃과 어우러져 여름철 관람객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호안의 배롱나무는 시문과 과거 사진을 볼 때 과거에는 주요 식생 경관이 아니었으며 이는 현재 배롱나무의 수령이 오래되지 않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경주 남산이라는 명산을 배경으로 한 서출지 일원은 은거와 학문을 위한 장소였으며, 조선시대 은거 선비들의 생활 흔적이 서려 있는 문화 경관이라 할 수 있다.

32 현재 서출지 호안에는 배롱나무가 일정 간격으로 식재되어 있다. 여름철에 배롱나무가 개화하면 연꽃 및 야간 경관 조명과 어우러진 모습이 장관을 연출하여 SNS·관광책자 등에서 서출지의 주요 경관으로 홍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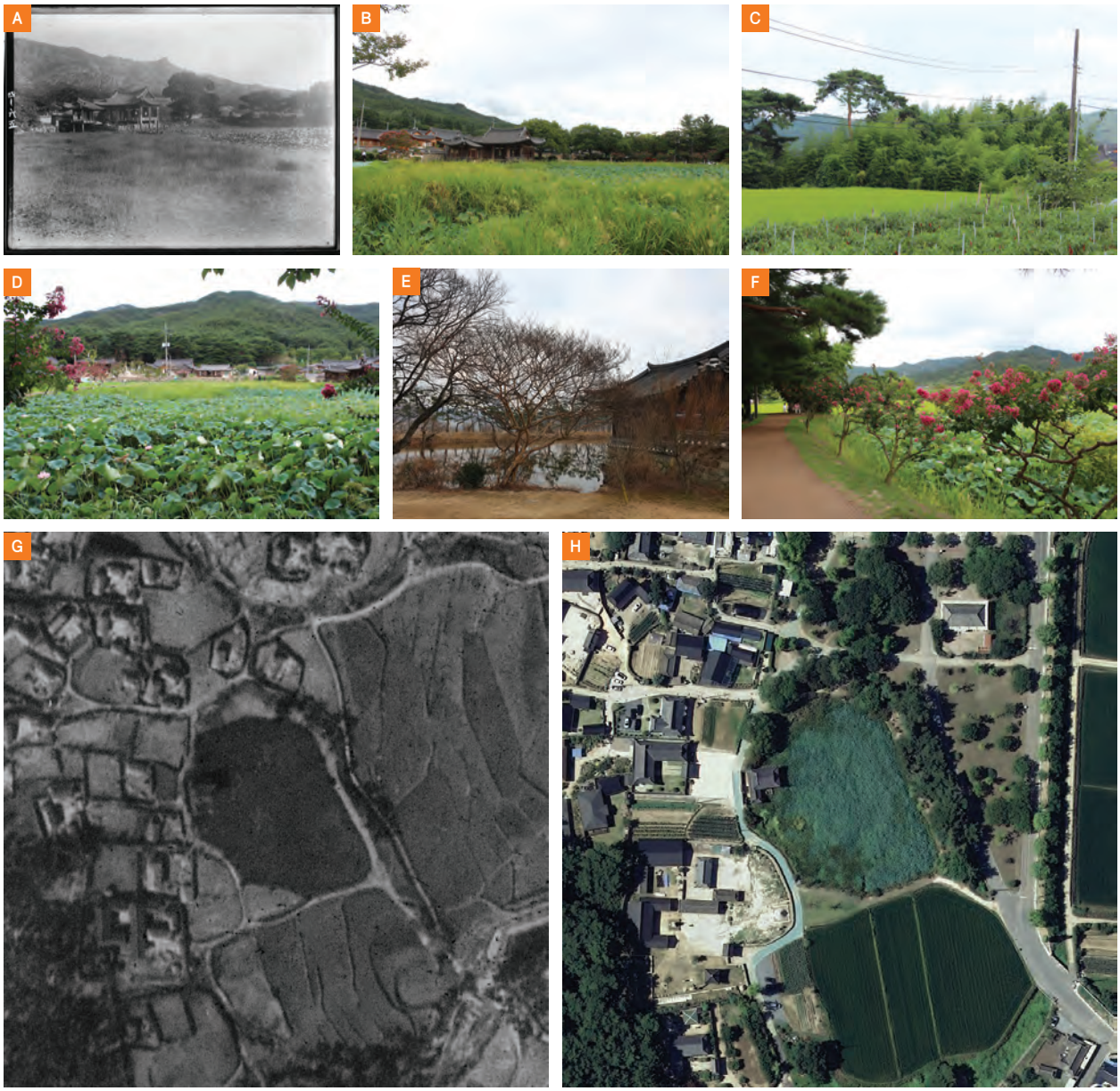


사진 8 서출지 일원의 과거와 현재 경관, A: 일제강점기 서출지 일원(동→서)(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B: 현재의 서출지 일원, C: 서출지 일원의 소나무와 대나무 숲, D: 서출지의 연, E: 이요당 옆의 배롱나무 고목, F: 서출지 호안의 배롱나무, G: 1954년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H: 2017년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Ⅳ. 결론 및 제언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서출지는 신라시대의 유서 깊은 연못이자 세계유산·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동안 서출지에 대해서는 사금갑 이야기를 통한 전설 속의 장소로 강조되어 서출지의 공간적 가치와 연혁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조선 중기 이후에 초점을 맞춰 서출지 일원이 풍천 임씨 가문의 정원으로 기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그 연혁과 공간 및 경관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라 이후 조선 초기까지는 서출지에 대한 기록이 없고,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시의 기능과 경관에 대해 추측할 수 없지만 조선 중기 풍천 임씨가 동남산 일원에 세거하면서부터 그 영향권에 있는 별서정원으로 경영되었다. 당시에도 서출지를 『삼국유사』

에 등장하는 유서 깊은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임적이 이요당을 서출지 가에 건립하면서부터 풍천 임씨 가문의 정원으로 기능하였음을 문헌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이요당은 임적의 가택에 있던 별채의 당호였으나 서출지 가에 이요당이 건립되고 자신의 집에 있던 별채의 당호를 서출지 가의 누정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문헌 기록을 살펴볼 때 이요당은 객당·정사·별각·별서 등으로도 불렸는데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 누정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서출지 일원의 경관에 대해서는 여러 문사들이 서출지를 찾아 시문과 기문을 남겨 당시의 모습을 추측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누정으로서의 기능 때문에 평소에 빙허루라는 명칭이 통용되었다. 서출지는 뒤로는 경주 남산(금오산), 앞으로는 넓은 들판과 남천이 흐르는 풍경이 수려한 곳으로 동남지역에서 으뜸인 경치로 이름이 높았으며,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을 두루 갖춘 전형적인 조선시대 별서정원이었다.

넷째, 현재 풍천 임씨 종가가 무량사라는 사찰로 변하여 종가와 서출지 별서정원의 관계성은 사라졌지만 현재의 주요 경관 요소인 연꽃과 소나무·대나무 숲이 옛 시문에도 나타나며, 현재 서출지 일원은 개발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지역인 것으로 봐서 경관이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서출지 호안의 배롱나무는 옛 시문과 과거 사진에 확인되지 않고 수령이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배롱나무가 두드러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 본 연구는 조선 중기 이후 서출지 일원의 정원 조영 과정과 경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고대 설화적 장소에 머물러 있던 서출지 일원의 가치를 조선시대 정원으로 확장한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조선 중기 이전의 서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향후 고고학적 조사(꽃가루 분석이나 연씨 발굴 분석 포함)와 주변 유적과의 관계성 등에 중점을 두고 서출지 일원의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덧붙여 현재 서출지 일원은 세계유산이자 사적 제138호로 관리되면서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안내판에는 사금갑 설화만 언급되고 이요당 앞 안내판은 이요당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전부이다. 이마저도 서출지와 이요당에 대한 연계성이 부족해서 관람객들은 단순히 설화 속의 장소로 인식할 뿐이다. 상기 서출지 일원의 경관을 읊은 시문 등을 활용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한다면 이 역사적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출지 일원에 대해 단순히 전설 속의 장소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정원으로 이용되었던 점을 부각하여 공간의 의미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주 남산 일원의 문화 콘텐츠이자 조경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사사

본 논문은 2018년 11월 16일 한국환경조경학회연합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발전시킨 것이다. 글이 나아질 수 있도록 조언과 심사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참고문헌

- 『東京雜記』
- 『牧齋集』
- 『二樂堂創建記』
- 『霽巖集』
- 『重修二樂堂記』
- 『淸臺日記』
- 『蒿廬集』
- 『花溪集』
- 『活山集』
- 『현종실록』 1권, 현종 대왕 행장(行狀)

- 강은해, 1996, 「사금갑 설화 연구」『어문학』 Vol.58, pp.1~24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2004, 『경주 남산 정밀학술조사보고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pp.347~349
- 김기조 옮김, 2008, 『조선총독부 발간 생활상태조사 (7) 국역 경주군』, 경주문화원, p.306
- 김수진·정해준·심우경, 2006, 「강진 백운동(白雲洞) 별서정원에 관한 기초 연구 -입지와 공간 구성을 중심으로-」『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24 No.4, p.59
- 김영남, 2008, 「新羅 炤知王代 射琴匣 事件의 歷史的 理解: 內殿焚修僧과 宮主의 問題를 中心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식, 2003, 「사금갑(射琴匣) 설화의 역사적 이해」『민속학연구』 Vol.12, pp.103~138
- 김형석, 2017, 「사적 제138호 경주 서출지의 위치 비정 논란에 대한 역사적 고찰」『신라문화유산연구』 Vol.1, pp.176~193
- 나희라, 2010, 「射琴匣 說話와 新羅의 王權儀禮」『역사문화연구』 Vol.37, pp.3~33
- 문경현 역주, 2015, 『역주 삼국유사』, 민속원, pp.164~165
- 이경희, 2005, 「사금갑 설화 연구 - 제의적 의미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필 역주, 2017, 『慶州鄕賢錄 下』, 경주시·경주향현록편찬위원회, p.2180, 2198
- 장창은, 2005, 「新羅 炤知王代 對高句麗 關係와 政治變動」『사학연구』 Vol.78, pp.1~35
- 조수학, 1985, 「사금갑 설화 연구」『인문연구』 Vol.7 No.2, pp.307~332
- 조철제, 1999, 「경주의 院祠와 亭齋 (2)」『경주문화논총』 Vol.2, pp.246~296
- 조철제, 2003, 「경주의 院祠와 亭齋 (6)」『경주문화논총』 Vol.6, p.107
- 최은주, 2009, 「어느 울산부사를 통해 본 지방관 글쓰기의 실제 -청대 권상일 울산부사 시절을 중심으로-」『영남학』 Vol.16, p.172
- 황재현 역주, 1990, 『국역 동경통지(東京通誌)』, 경주문화원, p.244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http://www.museum.go.kr/dryplate/main.do
- 국토지리정보원 http://www.ngii.go.kr/kor/main/main.do?rbsIdx=1
- 네이버 지도 https://map.naver.com/

참고문헌

- 다음 지도 http://map.daum.net/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 한국 역대 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aks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2 No. 2, June 2019, pp.62~79.
Copyright©2019,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Garden Construction and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the Seochulji Pond Area in Gyeongju during the Middle of the Joseon Dynasty

Hyung-suk Kim[a]* and Woo-kyung Sim[b]

[a]Dept. of Environmental Planning &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b]Research Institute for Spiritual Environments

*Corresponding Author : arsenal1780@korea.ac.kr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background of Gyeongju Seochulji Pond (world heritage, historic site No. 138), a historic pond in Sam-guk-yu-sa (三國遺事), and its landscaping period when it served as the garden of the Pungcheon Lim clan (豊川 任氏) in the middle of the Joseon dynasty. For this study, a literature review of poetry, prose, and a personal anthology, and a field survey were conducted. Changes in the landscape were analyzed by comparing the landscape appearing in the literature of the Joseon period with past photograph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even though the function and landscape at that time cannot be guessed as the objective ground from Silla to the early part of the Joseon dynasty is insufficient , it has been managed as a Byeolseo (別墅) garden as Pungcheon Lim's family resided in the area of Eastern-Namsan Mountain during the Joseon dynasty. At that time, Seochulji Pond was recognized as a historic place. It functioned as the garden of Pungcheon Lim's family as Lim Jeok (任勣, 1612~1672) built the Yiyodang pavilion (二樂堂).

Second, in the literature, the Yiyodang pavilion has been called Gaekdang (客堂), Jeongsa (精舍), Byeolgak (別閣) and Byeolseo, etc. It can be seen as Nu and Jeong (樓亭), utilized for various uses. Because of this, the name Bingheoru Pavilion (憑虛樓) has mostly been in common 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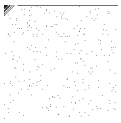
Third, Seochulji Pond was positioned where the scenery is beautiful, with Gyeongju Mt. Namsan (Mt. Geumo) in the background and with a wide field and the Namcheon River flowing in the front. This was typical of Byeolseo gardens of the Joseon dynasty, combining human environments with natural environments.

Fourth, the relationship with the Byeolseo garden disappeared as the head of Pungcheon Lim's family added a temple, lotus flowers, pine trees, and a bamboo forest as described in the old poetry and prose. Currently, the landscape does not appear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as development has not occurred in the area of Seochulji Pond. Also, crape myrtle (*Lagerstroemia indica*), which now symbolizes the Seochulji Pond, was not identified in the old poetry or past photographs and is not old enough to confirm whether it was prominent at the time.

Through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spatial meanings of the gardens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and not to highlight the area of Seochulji Pond as a place in the legend. This is a cultural asset in the area of Eastern-Namsan Mountain and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erms of garden history.

Keywords Byeolseo garden, Gyeongju Mt. Namsan, Pungcheon Lim, world heritage, Yiyodang Pavilion

Received 2018. 11. 19 ● **Revised** 2019. 01. 18 ● **Accepted** 2019. 05. 13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2, No. 2